

# '17표' ... 오늘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여당 반란표 관심

### 여야 21대 마지막 국회 특검법·국민연금 개혁 등 공방 국힘, 5명 공개 찬성에 표단속...민주당은 관철 총공세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번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론과 달리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5명 나오면서 막판 '표 단속'에도 나섰다.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공수처를 찾아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는 등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활용해 최대한 여당을 압박하면서, 만약 재의결이 무산되더라도 여권에 책임을 돌리며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던 연금개혁

도 막판 쟁점으로 돌출했다.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만큼 여전히 21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작지만, 연금개혁 시기와 방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 첫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과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4%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만 먼저 할 경우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 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을 보인다 면,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라도 더 나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여당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되,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모수개혁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21대 국회가 종료 되는 오는 29일에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반면, 문제점이 많은 이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거부권 행사 건의도 불가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 할 예정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특검 의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고, 공수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리얼미터,尹 지지율 30.3%...7주 연속 30% 초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 위 내인 1.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

는 0.6%p 상승한 66.1%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서울(5.8%p ↓)과 인천·경기(3.4%p ↓)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2.9%p ↑), 부산·울산·경남(2.6%p ↑), 광주·전라(1.7%p ↑)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5.7%p ↓), 30대(3.9%p ↓) 20대(2.2%p ↓)에서 하락했고, 60대(3.3%p ↑), 70대 이상(2.5%p ↑)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1.6%p ↓)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한편,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5.2%, 더불어민주당 33.9%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0.2%p 상승했고, 민주당은 0.6%p 하락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13.8%,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 1.3%, 진보당 1.2%, 기타 정당 2.2% 등이었다. 무당층은 7.6%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서병수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서병수 의원을 차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했다.

부산에서 5선을 하고 부산시장도 지낸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의 협치 출마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낙동강 벨트' 부산 북·강서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 의원은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얕은 중진 의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대선에선 경선준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냈을 때 사무총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선거관

리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투·개표관리, 규정 위반 후보자 제재 등 선거관리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서 위원장은 조만간 선관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선관위 구성을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하기에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이 새로 태어나는 것, 창당 이상의 개혁과 쇄신을 동반하기에 선관위원장이 잘 이끌어줬으면 하고, 위원장과 협의를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북한 “정찰위성 로켓 6월 4일전에 쏜다”

### 한중일정상회의 직전 발사 예고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27일) 직전,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준비 정황이 포착돼온 2번째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갈등 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27일 새벽 북한이 이날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하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고 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지시간 이날 0시부터 내달 4일 0시까지 3개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며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선박에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BYUN.G.U

SALE 5.22 ~ 6.8  
70%~50%

변지유 창립 45주년 맞이 감사세일

이월 상품 70~50% 세일 | 신상품 30% (방블라우스 제외)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 062-222-7205 / 010-9287-7205